

僧房이다.

맛배 단층의 기와집이다. 圓柱가 서로 대들보가 놓였고 대들보 중간에 대공이 서서 종도리를 받았다. 單楹인 셈이다.

기둥 위에 장혀를 꿰고 도리를 받은 모양새이다.

注目되는 부분은 보머리와 장혀와 도리가 짝여진 모습이다.

圓柱의 上端을 方柱처럼 깎아내어 턱을 내고 方柱形部分에 장혀를 짚고 보를 파서 내리 세웠다. 보가 方柱形狀을 전부 내려지지 못하여서 그 부분이 일부 노출되어 있다.

보는 原木를 생긴 모양대로 다듬어 놓은 동구리이나 운두보다는 폭이 넓게 보이게 되어서 보머리를 쳐다 보면 우습게 보인다.

圓柱끝을 다듬어 方柱처럼 한 예는 드물어 서울 南大門 中央高柱 등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이다.

鷄林鄉校 大門(以下 大門으로 略稱할)은 圓柱를 다듬지 않고 그냥 두어서 이것과는 구별된다.

민도리집은 대부분 方柱를 쓴다. 方柱는 圓柱에서 出發한 발달된 양식이라고 한다면 僧房의 기둥은 앞선 양식인 大門을 따라 동구리 기둥을 썼으면서 뒤에 나타날 方柱의 先驅의인 樣態를 暗示한 것이다.

기둥만으로 봐서 僧房은 大門과 민도리집과의 中間에 位置한다.

보의 모습은 大門과 흡사하나 민도리집과는 구별된다. 민도리집은 대략 남작보를 창방처럼 다듬어 쓴다.

보의 형태로 보면 민도리집보다 僧房과 大門은 古拙한 것이다.

보를 기둥머리에 짚는 모습이 서로 다르다. 민도리집은 장혀 왕찌위로 도리왕찌를 놓되 기둥머리 사갈이 보몸에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僧房은 장혀만을 기둥몸에 짚고 축을 남겨 보에 관 홈에 박히게 되었다. (그 중 일부는 장부턱을 만든) 大門은 기둥윗몸에 생긴 축에 보가 상투거리라고 보몸을 파서 도리를 얹게 하였다.

도리를 짚는 방법도 달라 민도리집은 보와 도리가 장혀 위에서 왕찌 짚이나 僧房과 大門은 보몸 위에 올려 놓이는 식이다. 大門과 僧房은 또 달라서 僧房은 보윗몸에 파진 홈에 얹을 장한 것이나 大門은 보몸을 폭

파고 내려 앉혀 기둥에서 올라온 축에 상투거리 되었다.

상투거리와 얹을 장 십자맞춤은 技法上 아주 다른 것이다.

도리의 모습도 서로 다르다. 민도리집은 장혀 모습이 고 僧房은 뜬 창방 같고 大門은 굴도리이다.

둥근목재를 治材하여 方形部材로 만들려면 그만큼 發達된 道具 없이는 불가능하다. 도끼나 자귀로 쳐내려서 方材를 만들 수는 있으나 그것은 극히 一部分 處理만이 가능할 뿐이고 割材에는 사용될 수 없다.

角材는 내림톱의 引鉅가 道具로 採用된 후어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角材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동구리 나무 그대로를 쓴 것보다 뒤진 시기에 등장하였다는 것을 自辨하는 것이다.

십자맞춤 등의 짚음법도 역시 톱과 끌이 상당한 수준까지 발달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역시 빗잇이음에 구멍을 뚫고 축을 꿰어 固定시키려 하였던 意圖보다는 進歩된 것이다.

道具의 發達、鐵製道具가 自由로이 木手손에 入手되어 活用할 수 있었던 시대와 그렇지 못하였던 시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자연 架構나 그 構成에 그것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렇게 보면 鷄林鄉校 大門이 가장 原始的인 수법을 보인 것이고 다음이 法住寺僧房의 양식이며 다음에 민도리집의 형식이 놓이는 순서가 된다.

이들 서로의 사이에는 또 過渡的인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찾아지는 날 이 系譜는 굳혀질 것이다. (一九六八年 九月七日記)

(註) 申榮燾·金東賢·韓國古建築斷章 架構上 (空間二卷六號) 參照

鄭嶺峙磨崖佛銘文과 淨蓮堂碑銘并序

金 鍾 太

全羅北道 南原郡 山內面 德洞里 鄭嶺峙의 磨崖佛 옆에 銘文이 있음은

考古美術資料第十五輯 續金石遺文에 『南原 鄭嶺峙磨崖佛』이라는 이름으로紹介되었다.

그러나 이 銘文은 調査 때가 十一月의 추운 겨울이었고 더구나 눈이 쌓여서 精確한 調査가 못되었으므로 이번에 다시 踏查를 實行한 결과發表된 銘文에 誤字가 있었고 磨崖佛도 八軀가 아니라 十軀이며 다른 두 곳에 銘文이 더 있었음을 찾아냈다. 그러나 刻文한 岩石이 水成岩인데도 千百m나 되는 高原地帶이므로 風磨가 甚하여 刻文全體를 判讀하기가 艱고 陰刻된 곳이 岩石 틈틈을 이용했기 때문에 縱橫이 一定치 않다. 刻字의 크기는 대개 縱二十四cm 橫十四cm이다.

I 世田?

明 月智佛

II

天普十王世人而

□□

師士?

III

十佛□滅陀羅尼

路□他惡普魯伽惡普

□□□阿明伽日和帝比

是□□□白阿衍

跢他伽跢

□提□訶

二

淨蓮堂碑銘은 實相寺에서 深原 골짜기로 四十里쯤 올라가는 도중半仙庵이라는 마을에 있다. 이 碑銘 앞에는 두개의 浮屠가 있었다고 하나 五年前에 未詳의 商人이 차에 싣고 갔다고 한다. 비록 浮屠가 없어지긴 했지만 碑文으로 보아 妙蓮堂과 淨蓮堂의 浮屠로서 두 사람은 夫婦였으

며 그 아들이 浮屠와 碑를 세웠다. 이 半仙 마을엔 本來 半仙庵이라는 寺가 있었다고 한다. 筆者가 三年前에 踏查했을 때 寺址 우물에서 乾隆三年重修라는 黑筆의 나무토막이 나온 것을 調査했다. 이로 보아 淨蓮堂과 妙蓮堂은 半仙庵과 관계되는 人物들이며 半仙庵은 李朝 中期에 까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碑幅 三五cm 碑高 六五cm 屋蓋高 三十一cm
表面

淨蓮堂碑銘并序

妙蓮堂法天月城鄭氏淨蓮堂法性密州朴氏也顯此兩人人間配偶出世道友也妙蓮乾也秘寶而先西淨蓮坤也現靈而後逝有比勝事何可泯沒其子惠安亦有孝沙門欲立淨蓮塔

陰面

以示後故故人槌冠讀其美爲作道號

以記焉 銘曰

翁兮婆兮 一秘一現 方文山高兮

法海爲慈 卽俗卽眞 其趾曷有其已

乾隆十四年己巳三月建 雲巖字觀謹書

서울市內에 移建된 石塔 三基

金 禧 庚

近來 地方에서 서울市內로 搬入되어 移建된 石塔이 數基 있기에 簡單히 紹介하고자 한다.

一、社稷公園三層石塔(其一)

基壇…… 높은 地臺石上에 二層의 基壇이 마련되었는데 下層基壇面石과 甲石이 一石造로서 四枚石으로 되었음이 特徵이라 하겠다. 上層基壇